

이재명 후보 “대선은 복수 혈전이 아닌 국민 삶 챙기는 미래 대장정”

- 송 대표는 100조 추정 신속 추진, “직능인 고통 해소 위한 선제적인 대책 필요”
-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 온라인 휴대폰 임명장, 정책마켓 등 첫선 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담은 복수혈전인가, 아니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대장정인가의 문제” 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을 복수 감정으로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국민 민생론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성장회복과 경제 부흥 △국민 중심의 새로운 민주당 △유능한 제4기 민주정부 등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국가와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한다” 면서 “특히 정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제4기 민주정부는 국민 중심 정당, 새로운 민주당, 개혁정당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 같이 받드는 유능한 정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직능본부 출범식에서는 대한족구협회에서 “이재명” 이름이 새겨진 족구화와 유니폼을 선물하며 이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종이 임명장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 영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일반 국민들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는 ‘온라인 휴대폰 임명장’ 이 첫선을 보였다. 또한 전국의 직능인과 직능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팔고, 직능본부가 구입하는 ‘재명이네 마켓’ (당 홈페이지 재명이네 마을)도 본격 가동됐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직능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00조 추경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이미 6조원인 지역화폐 예산을 30조원으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직능본부장(국회의원 재선·경기분당을)은 환영사에서 “직능단체의 현안과 정책 제안을 새겨두고, 직능인의 이익과 삶을 바꾸어나가는 새로운 대전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1,000만 직능인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직능본부 출범식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전국 100여 개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직능본부 대전환교육특별위원회 이정선 위원장(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서거석 위원장(전 전북대학교 총장), 고양 시민연대 특별위원회 공소진 위원장 등 50여개 특별위원회 대표가 동참을 선언했다. (끝)

[첨부] 행사 사진



※사진설명 :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직능단체, 특별위원회 대표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